

광주 동네책방 2년 새 25%가 문 닫았다

광주 서구 10·동구 6·북구 6·남구 5·광산구 3곳 폐업

대부분 소규모 서점 ... 전남 신안군 서점 단 한곳도 없어

누구나 서점에 대한 추억이 있다. 시골 외할머니 집처럼 푸근하기도 하고, 오래된 정원 같은 정겨움이 깃들어 있기도 하다. 학창 시절의 추억이 서린 서점이 지금도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안도감을 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날로 서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문학 위축이 가져온 결과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 많아졌다. 그러나 책의 향기, 문화의 향기를 나누고 전파하는 공간으로서점을 따라올 만한 곳은 없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날로 서점 수가 줄어들 만큼 출판업계의 불황이 깊어지

고 있다. 6대 광역시 중 광주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서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발간한 '2016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광주는 2014년 123개였던 서점 수가 2016년에는 93개로 약 25%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광주의 지자체는 광산구(3), 남구(5), 동구(6), 북구(6), 서구(10)개가 감소해 지역에 따라서도 감소 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신도심이 자리를 잡은 광산구는 서점수가 크게 줄지 않은 데 비해, 도심 공동화가 진행 중인 동구와 북구 등 구도심에서는 감소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대전은 44개, 부산은 23개

가 감소했으며 전국적으로는 서점 수가 1625개에서 1559개로 66개(4.1%)가 감소했다. 또한 전남 신안군을 비롯해 인천시 옹진군, 경북 영양군·울릉군·청송군, 경북 봉화군 등 6곳은 서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점이 단 한 개뿐인 '서점 멸종 예정 지역'도 2013년 대비 7곳이 추가돼 총 43곳에 이른다. 서점 1개당 인구는 평균 2만4869명이며 서점당 학교수는 10.4개, 학생 수는 472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에 분포한 순수서점은 2003년 2247개를 기록한 이후 2005년 20103개, 2007년 2042개, 2008년 1825개, 2011년 1752개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는 2005년과 비교하면 무려 544개가 줄어든 것이다.

특히 문 닫은 일반 서점 중 전용면적 165㎡(약 50평) 미만의 소규모 서점이

전체의 87%인 87개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소규모 서점의 경영난이 대규모 서점에 비해 경영난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서점수가 1996년 5378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년 새 70% 이상 감소했지만 2013년부터는 추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정가제 시행과 정부의 지역 서점 육성책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서점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도서정가제가 미흡하나마 서점 업계의 숨통을 트워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그러나 기존의 정가제를 충족하 보완할 뿐 아니라 지역서점 진흥법 제정, 공공기관·학교 등의 도서구매 계약 시 지역서점 인증제도 활용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한 번 보고는 알 수 없다

신형철 칼럼



평론가가 쓴 글을 보고 어쩌면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 하고 놀라는 분들이 있다. 어쩌다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슬쩍 설하는 비밀은 이것이다. ‘평론가가 여러분보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비밀은 작품을 여러 번 본다는 데 있습니다.’ 소설이란 영화건 그 무엇이건, 한 번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영화평론가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좋은 영화는 최소 세 번은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에는 이야기를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고, 두 번째에는 비로소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세 번째쯤 돼야 영상과 음악 등에까지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것. 문학작품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있는 천재도 있기는 할 것이다. 나는 천재가 아니어서 보고 또 본다. 보일 때까지 말이다.

여러 번 보는 것의 장점은 또 있다. 우리는 누구나 고유한 필터를 갖고 있어서 특정한 스타일의 대사나 연기 등에 거부감을 느낀다. 같은 영화를 봐도 A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어떤 장면을, B는 어색하다며 진저리를 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것은 그 작품의 객관적·보편적 결함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유형의 관객에게만 감지되는 거부함이다. 그 거부감을 강조하면 자신의 섬세한 미감이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관객도 있으나, 그런 요소가 등장하는 순간 몇 번 때문에 한 편의 영화 전체에 마음을 담아버리는 일은 좀 성급할 수 있다. 영화를 여러 번 보다 보면 어떤 면역 현상이 생겨서 그 거북한 요소들에 점차 관대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나는 여러 번 경험했다. 그리고 그제야 그 작품의 장점이 보이는 것이다.

확실히 작품은 사람과 비슷하다. 첫인상이 전부인 아니라는 점에서 말이다.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하자면, 한 번 보고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것은 평

론가로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윤리이지만, 창작자들에게 기대하는 ‘작업’ 윤리이기도 하다. 게으르게 만들어진 영화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인간을 납작하게 그린다는 것이다. 어떤 영화에 한 번 보면 다 알겠는 평면적 캐릭터가 나온다는 것은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타인이라 한 번 보면 다 총 다 파악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믿고 있다는 뜻이다. 이 지면에 언젠가 쓴 적이 있지만,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한 것이며 타인의 진실이란 얼마나 섬세한 것인지를 편리하게 망각한 채로 행하는 모든 일은 그 자체로 ‘폭력’이다. 창작이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 토요일 어느 영화관에서 했다. 김희정 감독의 ‘설행-눈길을 걷다’ 상영관에서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 행사. 공정을 기하기 위해 밝혀두자면 나는 김희정 감독의 친구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 영화를 만드는 그를 나는 존경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가 인간의 내면과 진실에 다가가는 그 신중하고 섬세한 태도를, 앞에서 말한 대로, 그의 ‘작업 윤리’를 좋아한다. 이번 영화도 그렇게 신중하고 섬세했기 때문에, 영화의 분위기에 전염되어, 관객 앞에서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말해보고 싶어진 것이었다. 안 본 분들을 위해 내용에 대한 논평은 생략하자. 대신 이 영화에 어울리는 문장이 있어 옮겨 적는다. 문학평론가 김인환 선생의 글인데 나는 이 글을 통째로 외우고 싶다.

“나는 절실한 상처의 기록을 읽기 좋아한다. 인간의 마음을 찍는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에는 선언장처럼 온통 가시가 박혀 있는 마음의 형상이 찍혀 있을 것이다. (...) 작가는 누구에게서나 상처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원호나 퇴계, 아리스토텔레스나 하이데거의 책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그들의 상처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아무리 상처가 영혼의 본질이라 하더라도 문학이 상처의 기록에 그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작품에는 상처를 달래는 지혜의 소중함과 어려움이 암시되어 있어야 한다. (...)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남을 다치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도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있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나와 남의 다친 영혼을 달래는 길뿐이다.”(‘의미의 위기’ 중에서)

<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매주 토요일 열리는 대인예술시장 행사 모습.

대인예술시장 3월 야시장 ‘봄의 문장’ 열어

대인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사업단이 봄을 맞아 ‘봄의 문장’을 주제로 3월 예술야시장을 개최한다.

야시장은 지난 5일 첫 번째 행사를 시작으로 12일과 19일, 26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대인시장 일대에서 열린다. 3월 별장은 기존 회화와 음악중심 야시장에 문학작 색채를 가미했다. 별장사업단은 이를 위해 광주·전남작가회의와 공동으로 문학 강연과 시 낭송 프로그램인 시시(詩市)한 이야기를 진행한다.

오는 12일에는 강제운 시인의 ‘섬 시인이 섬에서 주은 문장들’ 강연에 이어 조성국·고영서 시인이 낭송을 이어간다. 또 광주시립극단단이 전도복춤을 선

보이고 낭만가인 이성순이 가곡·가사·시조 창, 관객 정용주, 조민식, 블루스맨 김거봉 등이 거리공연을 펼친다.

19일에는 고재중 시인이 ‘봄을 부르는 시들’ 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심진숙·전숙경 시인이 낭송한다.

26일에는 김미숙 시인의 ‘이 빛깔들은 어디에서 왔나!’ 주제 강연에 이어 박석준·조혁준 시인의 낭송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장 곳곳에는 한국 현대시인 50명의 대표적인 ‘봄’ 시들이 내걸린다.

또 문화DJ 문형식이 웰컴센터에서 진행하는 ‘별이 빛나는 별장’에서는 ‘노래가 된 시, 시가 된 노래’를 주제로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 문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어린이 뮤지컬 ‘클라운타운’

‘봄봄! 리틀시어터’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4월 17일까지 참여형 공연·인형극

11일 뮤지컬 ‘클라운타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이 11일 어린이 뮤지컬 ‘클라운타운’을 시작으로 ‘봄봄! 리틀시어터(Little Theater)’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영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참여형 공연, 퍼포먼스, 인형극 등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오는 4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열린다.

극단 ‘벼랑끝날다’가 무대에 올리는 첫 작품 ‘클라운 타운’(12일 오후 3시·13일 오전 11시·오후 5시)은 유쾌한 빨간 코 광대들이 펼치는 코미디를 통해 위로

를 전하는 감성동화다.

주인공은 빨간코 광대들이 모여사는 클라운에 살고 있는 호기심 많은 소녀 미미. 울타리 너머 세상이 궁금한 미미는 어느날 클라운들과 마을을 몰래 빠져나와 모험을 시작한다. 티켓 전석 1만원.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통해 ‘ACO’(19일), ‘술래소리’(20일), ‘도토리네집’(26일), ‘깨망대할아버지 무서워’(27일), ‘재주 있는 처녀’(4월 3일), ‘피니스트 코메디 서커스쇼’(4월 9일) 등의 작품이 어린이들을 만난다. 홈페이지(www.acc.go.kr), 현장예매가 가능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